

칠칠재의 전형과 변용의 파노라마 *

제1저자 **이 성 운**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연구실장

제2저자 **김 인 목**

붓다아카데미 연구위원

- I. 글말의 인유를 드러내다
- II. 생사순환의 길목에 서다
- III. 재계수지로 공덕을 닦다
- IV. 망자의 공덕을 닦아주다
- V. 칠일마다 시왕권공 하다
- VI. 경전과 명호를 들려주다
- VII. 지장의 대원을 의지하다
- VIII. 망자와 산자를 이어주다

* 이 논문은 2020.6.19. 불교의례문화연구소·함안수륙재보존회에서 개최한 불교의례문화 제17차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한 것이다.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불교의 사후 칠칠재의 전형과 변용을 의례적 관점에서 살펴본 글이다. 현재 널리 유행되고 있는 사십구재라는 명칭은 근래에 이르러 쓰이기 시작했다. 불교의 생사관에 의하면 인간은 사후 49일이라는 중유 기간에 본인의 선업과 다른 이들이 지내주는 칠칠재에 의해 다음 생에 더 나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사후 7일마다 행하는 칠칠재는 망자를 위해 명부시왕에 권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십선을 권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망자의 공덕을 닦아주는 또 하나의 의식으로는 경전을 염송해 주는 법석이 있으며, 법석 가운데 범화법석이 영산재로 발전하였다. 이와 아울러 불보살의 명호를 칭명하는 정근의식도 칠칠재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에 이르러 시왕권공 중심의 칠칠재 의식이 지장보살에 대한 권공의식으로 변천해 가고 있다. 이는 명부시왕의 부정적 이미지가 상단[지장]권공의 긍정적 이미지에 덮이게 된 데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칠칠재(사십구재)는 망자와 산자의 소통통로이자 함께 잘 사는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중유, 칠칠재, 사십구재, 지장권공, 법석, 정근, 명부신앙

I. 글말의 인유를 드러내다

불교 칠칠재라고 하면 불교 내부자조차도 낯설어 한다. 그렇지만 칠칠재의 막재나 전 재회 기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사십구일재 또는 사십구재라고 하면, 신앙하는 종교를 떠나 누구나 크게 낯설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사십구재가 한국 상례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¹⁾ 칠칠재/사십구재가 불교 재회의 하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칠칠재가 언제 한국 내지 한국불교의 상례문화로 채택되었고, 또 그 전형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시원하게 듣기는 힘들다. 그 까닭은 늘 그렇듯이 한국불교의 문화 양상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글이나 말들이 많지를 못하고, 현재 한국불교에 활용되고 있는 의례와 의문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 “영가천도의식을 위한 범회임을 알 수 있고, 천도의식이 신라 때부터 있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천도의식이 오늘날에 전하는 사십구재의 형식으로 행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²⁾는 것처럼 칠칠재[‘사십구재’]라는 명칭이 부여된 의문이 별도로 등장하는 예를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사십구재’라는 명칭이 부여된 의문은 1980년 이후에 출현하기 시작한다. 영남의 대구지역 출판사에서 간행된 『사십구재의법』(1982)³⁾, 『불공의식사십구재 불교의식요집』(1995)⁴⁾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십구재’라는 명칭이 부여된 의문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십구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칠칠재[사십구재]의 형식이 비고정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국 이 칠칠재[사십구재]에 대해

1) 구미래(2005), 5. 주10).

2)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786>

3) 법성도(1982).

4) 이화옥(1995).

영산재로 접근하거나 사십구재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만⁵⁾ 보아도 그렇다. 의례 현실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가령 경산 지역과 영남 지방의 양상이 그것을 증명한다. 불교 재회인 이상 두 지역 또는 문파에서 활용되는 칠칠재의 의례 양식은 큰 틀에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칠칠재 설행 양상은 시대와 지역을 격하면서 유사하나 인식과 상황의 차이로 인해 조금씩 변용되어 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이 글말은 시작되었다.

결국 이 글은 칠칠재[사십구재]의 전형은 무엇이고, 그것이 현실에 적응해온 변용을 통찰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한국불교문화의 그 정체성을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 한국불교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제반사’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제반문』 등을 그 중심에 놓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것들과 현재 한국불교 칠칠재[사십구재]에서 활용되는 것들과의 변용을 살펴볼 것이다. 거기 담긴 의미와 인식 등의 탐구를 통해 칠칠재의 본회를 우리들이 향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가능될 수 있을 것 같다. 전개할 논의는 대략 이렇다. 첫째, 불교의 생사순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불교 상례문화의 등장배경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다. 이것은 이전 글말에서 빈번히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많은 지면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둘째, 살아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는 인과의 논리를 택하고 있는 불교에서 평소 닦는 선업의 행위와 그 유래 등에 대해 개괄한다. 셋째, 사람이 죽은 다음 산자는 어떻게 공덕을 짓고 있으며 유래는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넷째, 칠칠재의 칠일마다 만나는 심판자 시왕과 그들에게 올리는 의례 형식이 무엇인지를

5) 구미래(2005), 6.

살펴보겠다. 칠칠재 전형을 설명하는 핵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 그 명칭조차 『제반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이 의문을 중심으로 삼고, 형식과 특징 등에서 전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다섯째, 망자에게 공덕을 닦아주는 의식으로 경전을 들려주는 법석에 대해 정리해보고, 여섯째 근현대에 이르러 ‘사십구재’라는 명칭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칠칠재의 중심에는 지장보살과 그의 대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재회 형식은 현대 칠칠재회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과 그것들의 변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곱째, 칠칠재로 망자의 천도를 기원한 자와 천도된 자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전형을 정리하며 아울러 칠칠재가 현대에 적합하게 정착되려면 어떻게 변용되어야 할지도 살펴며 그 참 가치를 모색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II. 생사순환의 길목에 서다

동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해한다. 인간의 삶이 다해서 죽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거나 본래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가시적인 세계만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불교는 망자의 지은 업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고 한다. 고래 인도의 윤회설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윤회는 인도 고래의 고정적인 그것과 꽤를 달리한다. 업을 받는 측면이 강조되는 바라문의 그것과 달리 불교는 현재의 행위가 중심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생사의 갈림길, 그 길목에 서 있는 죽음

의 주체를 불교는 중유(中有) 또는 중음(中陰)이라고 한다. 중유는 생사를 거듭하는 존재들의 존재방식을 설명하는 하나이다. 대체로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생유(生有), 존재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본유(本有), 존재가 명을 다해 죽는 순간을 사유(死有), 죽음 이후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때까지의 존재 중유(中有)라는 사유(四有)로 나눠 이해한다.⁶⁾ 죽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모습의 중유는 식신(識身), 의생신(意生身, manomayakāya)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중유는 의식만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생사순환의 길목에 서있는 존재 중유의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지장경』에는, ‘대소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재를 열어 여러 좋은 인연을 짓게 되면 망자가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는지’를 묻는 대변장자의 질문에 지장보살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미래 현재 여러 중생들이 명을 마치게 된 날 한 붓다의 명호나 한 보살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를 듣게 되면, 죄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다 해탈하게 되며, 만일 남자나 여자나 살았을 때 좋은 인연은 닦지 않고 여러 죄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권속(친지)들이 작든 크든 복과 이익을 짓게 되면 일체의 성스런 불사 이득 칠분의 일을 (망자가) 얻게 되고, 나머지 칠분의 육은 산자(재자)가 스스로 얻게 된다.’고 하며, ‘몸이 죽은 뒤에 칠칠일 내에 널리 여러 좋은 인연을 짓게 되면 여러 중생들이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고 인천에 태어나 수승하고 오묘한 즐거움을 얻게 되고, 현재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다.’⁷⁾고 말씀하고 계신다. 나고 죽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중유의 존재들은 스스로 선업을 지을 수도 없고 선악을 구별조

6) 玄奘奉 詔譯, 『阿毘達磨大毘婆沙論卷第六十』(T 27), 309.

7) 實叉難陀 譯(T 13), 784.

차 못한다고 하면서, 지장보살은 연이어 이렇게 갈파한다. “염부제에서 선을 행한 사람도 임종할 때가 되면 백 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합니다. 하물며 본래부터 악을 지은 자들이겠습니까. ~ 염부제의 남자와 여인들은 임종할 때에 정신이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며,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⁸⁾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대승경전을 읽어주며, 불보살의 명호를 칭념해야 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유의 망자들은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망자를 혼미하게 하는 마군과 귀신들이 흩어져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재물 공양, 경전이나 계송의 염송, 불보살명호의 칭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중유의 존재들에게 산자가 제공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망자를 위해 산자가 제공하는 선업의 복덕은 망자보다 산자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망자를 위한 선업 쌓기는 산자의 선업 지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유가 다음 생을 받게 되는 기간인 칠칠일 간에 산자는 골육과 친지를 위해 복력을 지어주면 중유는 업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중유가 중유로 머물게 되는 기간은 어떨까. 대덕 법구는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 세우 논사는 최다 칠일이라고 하며, 설마달다는 칠칠일, 비바사들은 중유가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다음 생을 결정해 간다고 하고 있다.⁹⁾ 일반적으로 매 칠일마다 나거나 죽거나 하면 일곱 번을 지나 태어날 인연이 결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 망자를 위해 추선공양을 하여 명복을 구해주고 망자로

8) 實叉難陀 譯(T 13), 785b.

9) 玄奘奉 詔譯, 『阿毘達磨大毘婆沙論卷第六十』(T 27), 361~508.

하여금 과보를 받아 극락정도에 왕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망자가 다음 생에 어느 곳에 나게 되는가는 순전히 살아남은 친지들이 행하는 추선공양의 칠칠재[사십구재]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곧 생사윤회의 길목에 서있는 생전의 친지였던, 혹은 인연 있는 망자를 위해 칠칠재를 봉행해서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게 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산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망자를 위해 산자는 어떻게 누구에게 공양 올리고, 또 ‘대승’경전을 읽어주며 불보살의 명호를 들려주는가. 그 방법을 탐구하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선업을 지은 사람조차도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임종 때가 되면 악독한 귀신들에 의해 악도에 이끌린다고 한다. 그렇지만 평소의 선업은 결코 부정되지 못한다. 먼저 평소에 선업을 닦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Ⅲ. 재계수지로 공덕을 닦다

선악의 행위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는 인과는 무차별이고 평등하다.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는 무엇일까. 본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선악을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명부세계 시왕의 국문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다음은 남녀 죄인 잡아들여 형벌하며 국문하는 「별회심곡」의 장면이다. “이놈들이 들어보라. 선심하러 발원하고 인간 세상 나아가서 무슨 선심하였는가. 바른 대로 아뢰어라. 용방 비간 본을 받아 임금님께 끝까지 간하여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풍을 세웠으며, 배고픈 이 밥을 주어 굶주려 죽는 것을 구제하였는

가. 햇볕은 이 옷을 주어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공덕 지었는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행인을 위한 공덕 지었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내를 건너게 해주는 공덕을 지었는가. 목마른 이 물을 주어 물 길어 주는 공덕 지었는가. 병든 사람 약을 주어 사람 살리는 공덕 지었는가. 높은 산에 불당 지어 중생을 위한 공덕 지었는가. 좋은 밭에 원두 심어 행인의 목마름을 풀어 주었는가. 부처님께 공양 들여 마음 닦고 착한 마음으로 염불공덕 지었는가. 어진 사람 모함하여 해롭게 하고 의롭지 못한 일 많이 하며 재물을 탐냄이 매우 심하니 너의 죄목 어찌 하리. 죄악이 무거우니 풍도옥에 가두리라.”¹⁰⁾ 선한 공덕은 굉장히 넓게 설정되어 있다. 조선 후기 회심곡의 가사이니 당시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충효를 기본으로 음식을 베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선업을 하지 않고 재물을 탐냄이 심하니 죄업이 크다 하며 풍도옥에 가두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대표적인 선업은 밥을 베풀고 불전에 공양 올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재일의 의미가 또한 그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교의 발상지 인도불교의 초기 재일문화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기경』 「도리천공품」에서 붓다는 반월마다 8일, 14일, 15일의 3재를 지켜야 한다고 하시며 8일에 재계해야 하는 연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사천왕이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세간에 다니면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라. 부모에게 효순하고 사문 바라문을 공경하고 따르며 웃어른을 존경하고 섬기며 재계를 지키고, 보시하여 모든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명령한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두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사문 바라문을 공경하고 따르며 웃어른을 존경하고 섬기며 재계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두루 관찰한

10) 임기중(2000), 402~403.

다. 그리고 모든 세간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을 공경하지 않으며 재계를 닦지 않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왕에게 아뢴다. ‘대왕이여, 세간에는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을 공경하여 섬기며 재계를 깨끗이 닦고 모든 궁핍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너무도 적습니다.’ 사천왕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불쾌한 마음으로 대답한다. ‘아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악이 많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스승을 섬기지 않으며 재계를 닦지 않고 궁핍한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 모든 하늘 무리는 줄어들 것이며, 이수라 무리만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세간에서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을 공경하여 섬기며 재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좋구나. 나는 훌륭한 말을 들었다. 세간에 만일 능히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을 공경하여 섬기며 재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다면 모든 하늘 무리들은 늘어날 것이며, 이수라의 무리들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사천왕은 14일에는 태자를 보내 세간을 살피지만 여전히 세간 사람들이 선업 닦는 사람들이 적다는 보고를 받고 15일에는 직접 세간을 유행하며 ‘세간에서 부모에게 효순하며 스승과 웃어른을 공경하여 모시며 재계를 부지런히 닦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자가 있는가’를 관찰하여 제석천왕에게 아뢴다. 선업을 닦는 이가 많으면 하늘무리는 늘어나고, 이수라의 무리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재계를 닦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지 않으면 하늘무리는 줄어들고 이수라 무리는 늘어나게 되므로 반월에 세 번의 재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붓다는 더욱 중요한 가르침을 내리고 있다. ‘항상 매달 8일과 14일 그리고 15일에 가르침을 받고 재계를 닦으면 그 사람은 나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제석천왕에 대해 ‘제석천은 음욕을 내는

마음[淫心]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다하지 않았고, 또한 태어남 · 병듦 · 늙음 · 죽음과 근심 · 슬픔 · 괴로움 · 번뇌에서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나는 그를 아직 괴로움의 근본을 여의지 못했다'고 하며, '비구들은 음욕을 내는 마음[淫心]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이미 다했고, 태어남 · 병듦 · 늙음 · 죽음과, 근심 · 슬픔 · 괴로움 · 번뇌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은 괴로움의 근본을 이미 여윈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설하고 계신다."¹¹⁾ 보시의 재와 수신의 계를 행하여 선근공덕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세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재계를 닦아 선근공덕을 짓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매달 여섯 번의 포살일(齋法)을 받아 지녀 선근을 불린다는 뜻]이 있다. 백월(白月)은 반 달로 15일이고, 흑월(黑月)도 반 달로 15일이다. 백월과 흑월에는 각각 세 번의 재일(齋日)이 있는데, 무엇이 백월의 반 달 동안 세 번 재를 받드는 8일 · 14일 · 15일이다. 흑월에도 세 번 재를 받드는 날이 있는데 백월의 숫자와 같다. 무엇 때문에 백월 · 흑월의 두 달에 각 3일을 재계(齋戒)를 받아 지녀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백월 · 흑월에 각각 8일이 있는데, 이날에는 사대천왕이 그 권속들에게 명한다. ‘너희들은 저마다 가서 두루 사방의 세간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을 닦아 부모에게 효순하고 공양하며, 사문과 바라문을 공경하는지, 여러 어른들을 숭배하고 존중하는지, 보시를 닦고 행하며 계율을 받들고 지키는지, 8관(關)을 지켜 다스리며 6재(齋)를 지니는지를 자세히 살피라.’ 그때 사천왕이 이렇게 칙명하면, 그 여러 사자들은 천왕의 명을 받들어, 그 임무를 봉행한다.”¹²⁾ 선근공덕을 짓는 것은 재계하는 것이라고 정리된다.

이때 ‘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재의 본뜻은 신구의

11) 『世記經切利天品第八』(T1), 134~135.

12) 『起世經卷第七』(T1), 346~347.

(身口意) 3업을 정제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는 변화하여 식사를 정제함에 쓰이며, 정오를 지나지 아니한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이는 의식과 관련하여 승려들과 속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함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재(齋)라 하고 후대에 이르러 죽은 이를 위하여 성대하게 불공(佛供)을 올리며 천도하는 것을 ‘재’라고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재(齋)라 함은 곧 천도재라고 인식하게 되어졌다.”¹³⁾ 재의 근원적 의미를 보면 현재적 의미의 재와 깊은 상관성과 재의 종교적 가치와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불교의 재계(齋戒)는 범어 ‘uposadha’의 번역어이다.

“포살(우포사타)이란 원래 힌두 세계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던 정진결재일(精進潔齋日)이다. 매달 보름과 초하룻날, 이틀간을 성스러운 날로 정해 놓고, 바라문들은 그 전날 밤부터 화당(火堂)에 머무르면서 단식 내지 절식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습관이 있었다. 자이나교도 이 습관을 도입하고 있으며, 불교도 마가다국 빔비사라의 권유로 이를 채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불교에도 무척 일찍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¹⁴⁾ 재일에 일일일야의 재계를 수지하는 팔관재계를 지닌 복이 한량없다고 하고 하며,¹⁵⁾ 재계는 수정행(修淨行) 수기행(守飢行)이라고도 번역한다. 정행을 닦는 수행이며, 굶으며 하는 수행이다. 여기서 정행은 남녀관계를 갖지 않는 범행(梵行)을 의미하고, 기행은 오후불식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 재가신도의 대표적인 신앙활동의 하나로서 육재일과 같은 날에는 절에 가서 승려들처럼 오후불식과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이 날을 재일이라고 한다.

13) 沈曉燮(2004), 8.

14) 中村元 著, 金知見 譯(2011), 265.

15) 宋居士沮渠京聲 譯, 『佛說八關齋經』(T 1), 913.

그런데 어떤 연유로 재일에 승려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의미를 안게 되었을까. 삼보에게 재[공양]를 올려 보시를 하는 것은 신도의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승려들께 올리는 첫째 보시물은 음식임을 말할 것도 없다.¹⁶⁾ “일체 중생은 음식에 의지하여 몸과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이다. 밥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7일이 지나지 않아 문득 수명이 다한다. 그런 까닭에 음식을 베푸는 것은 곧 목숨을 베푸는 것이다. 그 목숨을 베푸는 자는 오는 세상마다 장수하고 하늘세간에 태어나 요절하지 않으며, 의복과 음식이 저절로 갖춰지며, 재물과 부귀가 한량이 없기 때문이다.”¹⁷⁾ 해서 재일에 재가 불자들이 승려들에게 음식을 올리고 팔관재계를 받고 정행을 실천하는 재계(齋戒) 신앙에는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午後不食)이라는 재의 본래적 의미와 승려들께 공양을 올리는 반승(飯僧)의 현재적 재의 의미를 모두 안고 있다¹⁸⁾고 하겠다.

결국 오랜 인류문화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재일에 재계하여 선근공덕을 닦아 선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살았을 적에 선근공덕을 닦지 않았을 때 그들이 받는 과보는 명약관화하다. 그렇지만 자비심 많은 원력 보살이나 살아남은 망자의 친지들은 망자를 위해 선근을 닦게 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죄업을 소멸하고 그들이 더 낫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한다.

IV. 망자의 공덕을 닦아준다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16) 이성운(2013), 257~258.

17) 失譯人名, 「佛說食施獲五福報經」(T 2), 855.

18) 이성운(2013), 258.

믿는 관념은 일찍부터 있었다. 일종의 영혼불멸론이다. 문화권마다 망자에 대해 지옥이나 천국이 언급되고 있는 것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가 표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주하는 실체로서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격적 주체로서의 업을 유지하고 있는 영혼은 3세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불생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윤회의 주체로서 업이나 경험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가면서 이어지는 유위법(有爲法)인 것이다. 유식(唯識), 법상(法相) 학설에서 말하는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¹⁹⁾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어 신이 되거나 조령이 된다고 하는 인도의 오화이도설(五化二道說)을 잠시 보자.

“인간은 사후에 화장되어 달에 들어가고, 다음에 비가 되어 땅에 내려와서, 식물에 뿌리에 흡수되어 음식물이 되고, 다음에 정자가 되어 최후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선행을 한 사람은 갖가지 단계를 지나서 조도에 이르며, 이 세상에 재생한다. 고행을 수행한 사람은 신도(神道)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어 재생을 하지 않는다.”²⁰⁾고 한다. 신도에 들어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조상을 위해 후손은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힌두교에서는 조령제로 결정(結晶)이 된다. 육친들은 죽어서 조령이 되기 때문에 조령제가 행해지는 것이다. 장례가 끝난 후 일정한 시기에 직계의 남자가 제주가 되어, 바라문 승려를 초청해서 쌀가루와 물로 만든 핀다를 공양한다. 그러나 조령제는 결혼식이나 어린 아이의 탄생과 같은 때에도 거행되는 경우가 있다. 바라나시나 가야, 야무나 강과 갠지스 강의 합류 지점 등지에 있는 성지를 순례했을 때의 조령제는 특히 공덕이 크다. 제주는 죽은 조상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 나가며

19) 中村元 著, 金知見 譯(2011), 435.

20) 中村元 著, 金知見 譯(2011), 111.

그 때마다 편다를 한 개씩 공양한다.”²¹⁾ 사후에 조령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조령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또 『담장 밖의 경(Tirokuḍḍasutta)』에는 “망자들은 담장 밖에서 그들의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설주 앞에 서 있네.”고 하며 망자를 연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망자에게 맛있고 정갈한 음식으로 보시하며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 공양이 죽은 이에게 전해지기를! 그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친지들이 보시한 음식 주위에 모여든 망자들은 감사하며 정성 다해 친지들을 축원하네. “친지들의 공양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음식을 보시한 친지들이 장수하기를! 그들이 이 공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²²⁾ 망자에게 음식을 베푸는 의식은 인도 재래의 전통이었고 불교가 이를 수용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망자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망자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 망자가 더 나은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산자는 망자의 음식 제공에 더해 다른 공덕을 추가로 지어주게 된다. 망자는 이미 생전에 지은 선악에 따라 다음 생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자가 더 나은 세계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의 지장경의 설과도 보았지만, 열 가지 선악을 심판하는 명부의 시왕과 그 권속에게 망자를 위해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예수시왕생칠경』이나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에는 매칠일마다 망자가 열 가지 악업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은 등장하지만 별도로 친지들이 공양을 올리면 망자의 죄업이 감해진다는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지장경의 그것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해주는 자료는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인데, ‘명도

21) 中村元 著, 金知見 譯(2011), 61.

22) Tirokuḍḍasutta, khp7.

전(冥道傳)’을 인용하며 설하고 있다.

“유사대국의 병사(빔비짜라) 왕이 생전에 25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칠칠재를 49회나 올렸지만 저승사자에 이끌려 명부에 잡혀가게 된다. 이에 병사왕은 ‘나는 왕위에 오른 이후로는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악한 업(業)은 조금도 행하지 않았으며 오직 착한 업만 지었는데, 무슨 죄가 있기에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채 이런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라며 절규한다. 이때 명부의 관리는 ‘대왕께서는 성심으로 시왕을 공양하기를 49차례나 하였으니, 우리들 시왕이 어찌 감히 대왕의 은혜를 배신하리오. 다만 종관(從官) 권속들은 대왕의 공양을 얻지 못하여 마음속에 끼고 대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러다 보니 대왕으로 하여금 이런 환란을 겪게 하는 것이오.’라고 대답한다. 병사왕은 명부권속을 알지 못해 공양 올리지 못했다고 하며 목록을 받아오게 된다.”²³⁾

이 기록에 의하면 생전의 시왕과 그 권속에 올리는 공양이 명부의 죄과를 면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의 진위를 떠나 시왕권공사상의 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왕에게 천신(薦新)함으로써 망자의 죄과를 벗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²⁴⁾ 이 모습은 평소의 생전예수신앙이지만 사후에 시왕에 권공하는 십재일신앙과 연결된다. 생전에는 스스로 칠칠재를 올리지만 사후의 망자는 스스로 공덕을 닦을 수 없으므로 산자가 망자를 위해 선근공덕을 지어주어 그 공덕으로 망자가 좋은 세상에 나게 하는 것이다.

23) 六和 撰(1576), 『預修薦王通儀』(KR 2), 88.

24) “預修薦王通儀”를 “생전에 미리 닦는 공덕을 명부시왕에게 바치는 통상적인 의식”[십상현(2017)]이라고 이해하지만 공덕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시왕에게 천신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V. 칠일마다 시왕권공 하다

망자를 위해 명부의 시왕과 그 권속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망자를 위한 칠칠재의 형식과 구조를 어떤가. 시왕에게 재를 올리는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예수시왕생칠경』이나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전은 당나라 때 성도부의 대성자사 시문 장천(藏川)이 찬술한 위경이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예수시왕생칠경』을 보자. “붓다께서 대중에게 염라천자가 미래에 보현왕여래라는 붓다를 이룬다고 수기하며, 십호가 구축되고 국토가 청정하고 백 가지 보배로 장엄되며, 나라이름은 화엄이며 보살이 층만 하다고 하신다. 명부의 제왕들은 두 가지 인연인데, 하나는 부사의해 탈부동지보살의 경지에 머물지만 극도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염마왕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한 경우는 다생동안 선을 익히고 계를 범해서 염마천에 떨어져 마왕이 된 이들로 여러 귀왕을 다스리고 십악오역을 지은 일체 죄인을 너욕에 가뒀 고통을 받게 나눠 처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경전을 만들어 수지 독송하는 이들은 목숨을 마친 뒤에 삼악도에 나지 않고 일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 부모를 살해하고 재계를 파괴하고 살생을 하는 등 일체 중죄인들은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 십억 · 오겁을 보내게 되지만 이 경전과 존상을 조성하면 업경대에 죄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염라왕이 기뻐하며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고 부귀가에 태어나면 그 죄의 허물을 면하게 된다.”²⁵⁾며 경전과 존상의 조성공덕이 설해지고 있다.

또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에는 각 시왕이 살생업, 도업, 사음업, 망어계, 불기어계, 양설지죄, 선인악연, 탐 · 진 · 우치의 일체

25) 藏川 述, 『佛說預修十王生七經』(X 1), 408.

제업 등을 언급하며, 십재일에 원불의 명호를 칭명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1일 정광불, 8일 약사유리광여래불, 14일 현겁천불, 15일 아미타불, 18일 지장보살, 23일 대세지보살, 24일 관세음보살, 28일 비로자나여래, 29일 약왕보살, 30일에 석가모니불을 이와 같이 십재일을 닦되 1년 동안 십계를 지니고 열 분 성인을 염송하면 복을 받으며, 명을 마친 뒤에는 여러 나라에 가게 되고, 또 염라왕과 권속들에게 일심으로 공양하며 예경하면 수명이 늘어나며 불기어계를 지닌 사람은 반드시 비명횡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²⁶⁾

『불설지장보살발심인연시왕경』은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첫째는 시왕이 십악업을 심판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명부왕이 칠일마다 그것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열 가지 악업의 심판자로서의 시왕과 매칠일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동시적이라는 것이다. 시왕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십악의 심판이고 십악업을 벗고 십선업을 닦기 위해 십재일이 배대되었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망자의 칠칠일과 관련된 칠칠재, 십악업의 심판사상과 관련된 시왕재는 망자에 대한 추선불사라는 점은 같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바탕에서 성립되었음을 주의해야 한다.²⁷⁾ 중유의 존재 기간과 관련된 칠칠재는 십악의 심판이라는 시왕사상을 만나 십재일과 칠재 이후에 유가의 제례를 본떠 불교에 수용된다. 당말에 이르러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 편찬되면서 종래의 초재부터 칠재까지의 일곱 번의 재를 지내는 것 외에도 백일재, 일주기, 삼회기의 재(齋)가 더하여져서 모두 10번의 재를 지내는 시왕재(十王齋)로 발전하였다.²⁸⁾

그렇다면 매칠일마다 재를 올리는 칠칠재 각재의 형식은 어떠했을까. 매칠일마다 시왕에게 권공하는 의례는 한국불교에 시왕사상이

26) 藏川 述, 『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X 1), 405~407.

27) 道端良秀(미치하타 료오슈우), 최채경 역(1991), 102.

28) 道端良秀(1960), 10.

전래되고 시왕사 등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설행되었을 것이다. 1004년 김치양이 시왕사를 건립하고, 시왕사 종명(鐘銘)에 “이 생이 동국에 있을 때는 함께 선을 닦고, 죽은 뒤 서방에 왕생하는 날에는 함께 깨달음을 증득하자”고²⁹⁾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왕신앙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그것이 왕생극락과 깨달음의 증득을 위한 신행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13세기 중엽 1246년 정안에 의해 『불설 예수시왕생칠경』이 간행되고³⁰⁾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시왕신앙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시왕공양의 구체적 자료는 후대 조선 초기를 지나서 나타나고 있다.

선초 태조 이성계의 원찰로 유명한 석왕사에도 시왕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조선 이전의 자료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불교의 레자료총서』(약칭 BR)³¹⁾와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의 신집성문헌³²⁾에 의지할 수 있다. BR에는 『보현사권공제반문』³³⁾(1574, BR1), 『금산사제반문』(1694, BR2), 『해인사제반문』(1719, BR2)이 실려 있고, 신집성문헌에는 10편의 제반문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다. 의문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BR 소수 세 의문의 차례 가운데, 『보현사제반문』에는 비교한 두 『제반문』에 실린 ‘신향계와 표백 정토결계진언 쇄향수진언 정지진언 정삼업진언 건단·개단진언 정법계진언’³⁴⁾ 등의 개계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도량을 정화하는 의식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현사제반문』과 달리 『금산사제반문』과 『해

29) 『고려사』 列傳 卷第四十. “當生東國之時同修善種後往西方之日共證菩提”

30) 한상길(2017), 34.

31) 박세민 편(1993), 전4권.

32) <https://kabc.dongguk.edu/Home/Contents?cocode=03&tcode=08&naviKey=1>

33) 『권공제반문』(KR1, 1573),

34) 『금산사제반문』(KR 2), 489~498; 『해인사제반문』(KR 3), 639~645.

인사제반문』에는 시왕통청 이후 태산부군을 별도로 소청하고 있다. 16세기 의례자료와 17세기 말 18세기 초반의 문헌의 차이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닦는 일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의 청에서는 소청명부의 증명으로 풍도대제가 소청되고, 각배재에서는 『금산사제반문』나 『해인사제반문』에서와 같이 시왕청 이후 태산부군이 소청되고 있다.³⁵⁾ 풍도대제와 태산부군은 중국의 남·북 명부사상을 대표³⁶⁾하나 이후 한국 명부신앙에는 의문에는 실려 있으나 크게 인연 짓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 『금산사제반문』에는 시왕청의 제반의식 이전에 영혼식과 거영산작법절차가 편재되어 있다. 영혼식은 혼령을 맞이하는 의식이고 <거영산작법절차>는 오늘날의 영산재 작법절차로서 회주를 모셔 와서 설법과 법화경 경전을 동송하는 의식이다. 『보현사제반문』이나 『해인사제반문』에는 영혼식과 영산작법절차가 등장하고 있지 않는 연유를 명확하지 않으나 영혼식이나 영산작법의 성격을 보면 어느 정도 규명된다. 시왕청은 시왕권공을 위한 것이고 영산작법은 혼령을 맞이하여 경전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시왕을 청하여 권공하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왕청의 유치를 봐야 한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환희원(歡喜園)에서 중생들의 근기에 응하시는 성현들은 달이 일천 강에 찍혀있는 것과 같고, 저승세계에서 죄를 다스리는 순서대로 계시는 왕들은 시왕님들은 별이 나열된 것과 같으며, 쇠 지팡이를 짚고 지옥의 고통에 빠진 중생을 건지시나 거리까지 않고, 유리구슬 관(갓)을 쓰고 선악(善惡)을 판결하심에 사사로운

35) 이성운(2018), 213~215.

36) 홍윤식(2015), 25~26.

데 끌리지 않으시며 서원하신 원력은 생각으로 알기 어렵고 위엄과 신령함은 가히 두렵습니다. 무릇 오고기는 업장의 그물을 뚫고 생사의 미혹한 나루를 건너고자 한다면, 어찌 다 함께 귀의하고 경건하게 공양을 차리지 않겠나이까. 이러하므로 어디 사는 누구는 엿드려 모영가가 정계에 왕생하도록 하고자 모칠재를 모사찰로 나아가서 어느 달 금일 정성으로 법연을 마련하고 깨끗한 공양을 남방화주 지장보살과 도명존자를 필두로 무독귀왕과 저승세계 십대왕님과 태산부군과 오도대신과 열여덟 지옥의 왕과 24분 책상 앞에 있는 관관(判官)들과 36분 귀왕들과 선악의 이부동자와 모든 지위의 사자(使者)들과 일체 영혼 세계의 관리(靈宰)들께 공양을 올리나이다.”³⁷⁾ 모칠재라고 하여 산자가 망자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칠일마다 시왕과 그 권속에 공양을 올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칠재에 해당하는 ‘금일당제제모대왕’³⁸⁾을 칭하는 형식의 약례왕공을 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일당제는 각 칠재와 백일재, 소상재, 대상재에 해당되는 십재를 지칭하며, 명부시왕 모두에게 권공을 올릴 때는 시왕칭의식으로, 각 재 곧 당제의 해당 명부 왕에게 권공 올릴 때는 약례왕칭으로 증명성인과 해당 명부왕과 그 권속에게 공양을 올린다. 시왕천공은 십재일신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³⁹⁾ 또 유치와 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37) 『권공제반문』(KR 1, 1573), 653.

38) 『권공제반문』(KR 1, 1573), 661.

39) 십재일 · 원불 · 시왕 · 해당육갑: 1일 정광불 진광왕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8일 약사불 초강왕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14일 현겁천불 송제왕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15일 미타불 오관왕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18일 지장 염라왕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23일 대세지 변성왕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24일 관음 태산왕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28일 비로사나 평등왕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29일 약왕보살 도시왕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30일 석가불 진륜대왕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시왕청의 유치 형식은 유치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디 사는 누가 모인의 모칠재를 맞아 모혼령이 왕생극락을 발원하기 위해 어느 사찰에 가서 정단을 마련하고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칠칠재의 핵심은 시왕과 그 권속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은 설재의 증명공덕을 위해 청하는 것이지만 유치에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증명청사에서는 시왕청사의 수차공양(受此供養)이 아니라 증명공덕으로 마치고 있지만 ‘수차공양’을 권선하는 현대에는 시왕보다 지장보살 위주 권공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VI. 경전과 명호를 들려주다

1. 경전을 독송해 주다

『지장경』에서 보았듯이 망자를 위해 경전을 염송해주고, 불명의 명호를 들려주는 공덕이 크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티베트불교의 ‘중유문법해탈(中有聞法解脫)’로 번역되는 『티베트사자의 서』가 있으며, 이것은 단지 들음을 통해서 성불하는 길을 제시한 아주 특별한 법이다.⁴⁰⁾ 망자에게 경전과 명호를 들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망자로 하여금 붓다의 가피를 입고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경전과 명호를 들려주어 깨닫게 하는 의례는 칠칠재의 핵심 요소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경전과 명호를 들려주어[聞法] 망자를 해탈로 인도하는 의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붓다 재세 시에는 붓다가 계신 곳으로 가서 교법을 듣거나 공양에 청해 올리고 듣게 된다. 무불 시대에 불법을 듣기 위해서는 붓다와 실제 교법을 설해줄 이들을

40) 중암 역주(2014), 8.

칭해 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 격식이 종교화되게 되어 있다.

설법을 듣는 형식의 하나로 양나라 부 대사(497~569) 금강경에서 확인되는 장면이다. ‘금강경을 지송하고자 하면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정구업진언을 염송하고 8금강4보살의 명호를 칭명하여 칭하면 있는 곳을 항상 옹호한다고 하며 다음의 의례를 제시하고 있다. 정구업진언, 허공장보살보공양진언, 운하범(云何梵; 금강불괴신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견고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경의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을 이 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붓다시여, 미묘한 비밀을 열어 중생을 위해 설해주소서), 계수발원문, 청8금강4보살한 다음 경전을 염송한다. 염송이 끝나면 대신(大身)진언, 수심(隨心)진언, 심중심(心中心)진언 옴 오륜니사 스바하로 마치고 있다.’⁴¹⁾

하지만 1464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금강경』에는 정구업진언 다음에 안토지진언(현재의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이후에 보공양진언, 발원문이 운하범을 앞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경계가 자리하고 있는데,⁴²⁾ 부대사본과 달리 안토지진언이 추가되어 있고, 염송 이후 의례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독송용 금강경에는 정구업진언,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봉청팔금강, 봉청사보살, 발원문, 개경계, 개법장진언의 순서를 제시하는 예를 볼 수 있다.⁴³⁾ 간경도감본에 비하면 보공양진언과 운하범이 빠지고 개법장진언이 추가되어 있으며, 안토지진언이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으로 변해져 있다. 운하범이 빠진 것은 『부대사금강경』에서 확인되는 금강경 독송의 목적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강경독송 목적은 금강불괴신과 견고력을 얻어 피안에 이르겠다

41) 梁朝傳大士頌金剛經(T 85), 1~8.

42) 간경도감(1464), 30~33.

43) 김도원(1988), 7~10.

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이 독송경전으로 자리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금강경 명칭의 금강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경이 수당시대가 되어 급속도로 염송된 것은 중국 선종의 6조인 혜능이 이전의 선가에서 중시하던 능가경보다 이 경전을 중시하고, 또 이 경전이 생명을 연장하는 수명경(壽命經)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된 이후의 일이다.’⁴⁴⁾ 또 보공양진언이 빠진 것은 안토지진언이 성현을 청하는 진언이 아니라 제신을 위로하는 진언이라고 인식하면서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으로 변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와 같은 경전 염송이나 독송 형식은 ‘작법절차’라는 의례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그 정점은 현재 영산재와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이다. 이 절차의 전신은 15세기말 학조 편역 『진언권공』(1496)에 실린 <작법절차>라고 할 수 있고 법석은 대략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⁶⁾

<표 1> 「작법절차」(1496)의 법석 이전 차례

할향/연향계, 할족/연등계, 할화/서찬계 삼귀의 ‘삼지심례’ 개계문 관음청 “항화청” 등장 삼청 후 쇄수계 誦千手 周回道場 灑水後 入法堂 쇄수계 엄정계 次 舉佛 법화즉 ‘5종 거불 등장’ 화엄즉/ 참경즉/ 미타참즉/ 지장경즉 次 拈香/ 개경계 次 會主 釋題 次 同誦 次 請佛 覺照圓明 ~ 利濟群品 一心禮請 ~ 불타야중, [和云] 유원자비 광림법회 ”

위 표에서 확인되듯이 거불 이전은 도량 결계와 엄정이다. 법회

44) 차차석 편저(2007), 231.

45) 이성운(2011), 36~56.

46) 이성운(2019), 29.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지면 거불이 달라진다. 거불의 성격은 경전 독송의 법석과 관련이 있다. 당일 설행되는 법석에 따라 5종의 거불이 선택되고 있다. 불교 칠칠재의 법석은 1420년 공식적으로 폐지되는데⁴⁷⁾ 조선 초기에는 추천을 위한 법석이 성행되었다고 보이며, <法華>·<華嚴>·<三昧懺>·<楞嚴>·<彌陀>·<圓覺>·<懺經> 등의 法席이 행해졌다.⁴⁸⁾ 이 법석은 “죽은 사람을 위해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고 승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칠칠재를 올리고 그간에 법석을 열어 빈소에 불상을 놓고 승려를 맞이하여 도량이라고”⁴⁹⁾ 하는 것으로 칠칠재 기간 중에 분속시켜 5일간에 걸쳐 행해졌다.⁵⁰⁾

하지만 현재의 영산재에서는 법석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설행 조건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의례 설판과 관련된 설행의 제약, 또 작법의 예술화⁵¹⁾ 등으로 인해 법석이 나 중단의 명부시왕권공조차 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칠칠재 기간에 행해진 법석의 의미를 살려 각 재회별로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미타경을 염송하거나⁵²⁾ 각 재회별로 영가시어와 금강경찬, 부모은중경과 지장경 이익존망품, 아미타경과 법화경 여래수량품, 관음경과 능엄경 이근원통장, 원각경 보안장과 무상계, 금강경, 팔양경 등을 염송한다.⁵³⁾ 한편 법석의 의미대로 의례의식이 진행되는 한 권에서 경전 염송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⁵⁴⁾

47) 『태조실록』 권9. 세종 2년 9월 24일 기축 7번째기사.

48) 『세종실록』 권9, 2년(1420년) 9월 24일(기축) 7번째기사.

49) 『태종실록』 권24 12년(1412) 10월 8일조

50) 이성운(2015), 423.

51) 이은봉(1997), 83.

52) 한정섭(2006), 78~293.

53) 묘성법안(2005), 1~175.

54)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법사 증언.

2. 붓다의 명호를 칭명하다

『지장경』에는 임종인의 이근(耳根)에 불보살이나 벽지불의 명호를 들려주기만 해도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성인과 인연을 짓게 되어 악업을 소멸하고 인천에 태어나 수승한 쾌락을 받게 된다고⁵⁵⁾ 하였다. 명호를 칭명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대표적인 한국불교의 의례로 <정근> · <칭양성호> · <정토업> 등이 있다. 정근은 불보살의 명호를 연속하여 칭명하여 가피를 입고자 하는 기도의례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근으로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나모아미타불, 지장보살, 화엄성중 정근 등이 있으며, 조석예불이나 기도, 권공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칭양성호> 또한 <정근>과 유사하지만 <정근>이 동일 명호를 반복하는 데 비해 <칭양성호>는 시식의례 중의 4여래, 5여래, 7여래를 삼칭하는 것으로 무외시(無畏施)의 관점에서 염송된다. <칭양성호>는 다보여래, 묘색신여래, 광박신여래, 이포외여래의 4여래 칭명으로 시작되어 감로왕여래가 추가된 5여래 칭명과 보승여래, 아미타여래가 추가된 7여래 칭양성호까지 발전하고 있다. 칭양성호 의례의 생성 당시 공능은 성인의 명호를 칭명하여 듣기만 해도 재물을 얻고 상호가 좋아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수륙재의문’ 이후 한국불교의 의문들에서는 ‘모든 고힌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한다’의 차원을 뛰어넘어 ‘제가 각각이 이러이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변형되고 있다. 결국 선양성호의 공능을 축원으로 이해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4여래, 5여래, 7여래로 칭양성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은 고힌의 상태를 원초적인 상태의 개선과 더 나은 세계로의 전화와 같은 2차 단계로 변화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⁶⁾

55) 『지장보살본원경』(T 13), 784.

56) 이성운(2012), 69~76.

불보살의 명호를 들려주는 또 하나의 불교의례로는 ‘장엄염불’로 알려진 <정토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토업은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자량을 얻어주는 역할을 겸한다. 염불공덕으로 왕생극락의 자량을 닦아주는 정토업은 한국불교에서 가장 잘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적지 않게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활용되는 의문의 구조를 보면, 발원계송(원아진생무별념~) 집주계송(아집염주법계관~), 십념행법, 극락세계 십종장엄, 미타인행 사십팔원, 불보살 십종대은, 보현보살 십종대원, 석가여래 팔상성도, 다생부모 십종대은, 오종대은 명심불망, 고성염불 십종공덕, 찬불계송(靑山疊疊彌陀窟~ 등)⁵⁷⁾으로 진행된다. 찬불계송과 선구 등을 염하며 아미타불을 대중이 합창하는 장엄염불은 문자 그대로 염불을 장엄하는 것으로 선후창의 형식이라 법주와 대중이 한마음으로 염하는 염불의 장엄함을 더해준다. 장엄염불 정토업은 정토수업(淨土修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무아미타불’의 칭명 염불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염불을 통해 극락 가는 노자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례를 마치며 극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행되고 있으므로 대중성이 무척 높다고 보인다.

VII. 지장의 대원을 의지하다

망자를 위해 칠칠재를 열어 공양을 올리고 경전과 명호를 들려주는 직접적인 공덕 닦기와 경전과 불탑이나 불구의 조성 등의 공덕 짓기도 병행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의례 측면에서 칠칠재의 구조 속에서 전형과 그 변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장부터는 사실상 맺음글말이

57) 安震湖 編, 韓定燮 註(1982), 477~481.

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불교 일반에서 행해지는 칠칠재(사십구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럼 지장의 대원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이를 해명하려면 현재 칠칠재(사십구재)의 형식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칠칠재(사십구재)의 실행 의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경산지역은 (시련), 대령·관육, 신중작법, 삼보통청(혹은 지장청), 법문, 상단권공, 신중권공, 시식, 봉송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⁵⁸⁾ 영남지역은 ‘대령·관육, 삼신이운, 상단권공, 지장청, 석영반(夕靈飯), 신중작법, 전점안(錢點眼), 대례왕공, 법문, 화청, 중단권공, 시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⁵⁹⁾ 큰 재의 경우 시련을 하고 하는데, 시련과 대령을 순차 의례로 이해하고 있지만 시련(侍輦)은 시주이운의 의문이고, 대령은 문자 그대로 혼령을 맞이하는 영혼식(迎魂式)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의례를 확대해서 하는 경우 상단권공 대신에 영산, 각배, 상주권공, 삼보통청, 지장청 중에서 택일하고 있다.⁶⁰⁾ 상단권공을 영산이나 각배, 상주권공, 지장청 가운데 택일한다는 것은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례의 설판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설판에 따라 의례를 선택하게 되지만 그 핵심에는 시왕권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칠칠일의 재회 기간에 중유의 망자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권공하여 그 공덕으로 더 나은 다음 생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권공 가운데 시왕권공의 증명단에 공양 올리는 형식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대한불교조

58)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 271~357.

59) 법성도(1982), 1~385.

60)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1998), 257.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거량, 설법, 상단(영산, 각배, 상주권공, 삼보통청, 지장청 중에서 택일), 중단권공, 시식, 봉송의 순서가 제시되어 있다.

계종포교원(1998)에서 설명하는 택일의 문제를, 의례 실행 주체들은 규모의 문제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에서 답을 주고 있다. 택일이라고 한 것을, 수정판에 이르러 ‘보통 지장청으로 하나, 전문의식의 경우는 영산, 각배, (상주)권공으로 한다’⁶¹⁾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 각배, 권공을 전문의식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승려들은 수행하기 어렵고 범패나 작법무를 읽힌 의례 승려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술화가 이뤄진 의례라는 것은 자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미상으로 볼 때는 영산이나 각배나 상주권공 의식은 다 설법 독경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론된 세 의례는 전문의례로 규정하여 일반의례와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재의 규모에 따라 영산, 각배, 권공을 택하게 되더라도 근현대시기에 칠칠재(사십구재)를 영산이나 각배로 실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전언을 듣고 있다(서울 안정사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유지홍 노사 증언). 현대 경산지역 불교 칠칠재는 짧게 실행할 경우, 2시간, 점 더 길면 3시간, 가장 긴 경우 4시간을 잘 넘지 않는다고 한다.⁶²⁾ 이는 전통적인 의례 형식으로 의례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유의 망자에게 더 나은 세계로 가서 나고 불도를 이루기를 발원하며 행하는 의례의 세 가지 축은 경전 독송의 법석, 시왕과 그 권속에게 권공, 불보살의 명호 칭명 등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재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다만 명부시왕에 대한 권공의례가 그 의례 증명의 성현인 지장보살의 권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명부의 시왕과 그 권속에 대한 권공의 증명보살 지장보살과 협시존자가 권공

61)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 271.

62)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소리 보유자 동주 대사 증언.

을 받는 주 대상으로 변해진 데는 여러 의미가 있다. 아마도 명부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자비의 화신인 대 원력 보살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기탁하고 싶은 중생의 욕구에서가 아닐지 모르겠다. 전문의 식이라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의식 도청으로 설행하면 큰 무리 없이 명부 시왕 권공 의식을 봉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칠재 의식에서 신중작법은 경전염송 의식의 8금강 4보살을 청하여 경전염송도량 옹호를 부탁하는 것이 발전되었다. 8금강 4보살이 104위의 대창불이나 39의 화엄창불로 변했을 뿐이다. 현재의 칠칠재 의식은 경전독송의 법석과 재를 올리는 공양의식, 명호를 창하는 정근 의식이 혼재되어 있다. 또 대령·관육이 칠칠재의 칠재, 곧 막재(49일 재)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데,⁶³⁾ 이는 막재가 가장 사실상 칠칠재의 절정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육은 영식을 맑히는 의례이고 업식을 맑히지 못한 혼령은 해탈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혼령을 처음 사찰로 모실 때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반혼재(返魂齋)⁶⁴⁾ 때는 제반 여건 상 대령·관육을 설행하기 어려워 간단한 의례로 봉안하여 칠칠재를 봉행하고 있다. 반혼재라는 명칭도 그렇다. 반혼은 장례를 마치고 혼령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을 하는 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찰로 들어오면서 영혼식(迎魂式)이라고 하지 않고, 반혼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혼령이 자가의 혼전이나 상청에 모시지 않고 곧바로 사찰에 봉안하는 현실에 매 재 때에 혼령을 모셔 와서 재를 봉행하던 시대 의식으로 설행하는

63) 한정섭(2006), 10~344.

64) 현재 반혼재(返魂齋), 반혼제(返魂祭)라고 칭해지고 있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의식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이 의식이 소수된 의문은 찾기 어렵다. 『다비문』에서 반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다비의 대상이 출가사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머물고 있던 처소로 혼령이 돌아오므로 반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가자가 사찰로 들어오는 형식은 영혼식(迎魂式)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데서 일어나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전점안(錢點眼)의식이 경산지역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錢)은 저승빔인데 대재인 경우 좌우에 금·은산으로 만들어 걸어놓는데 재회를 마치고 봉송할 때 그것을 불태워 저승으로 보내준다. 해서 패전진언과 소전진언이 존재한다. 패전진언과 소전진언을 엄송하나 그 의례를 실행하지는 않고 있으나 영남지역의례에서는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 외에도 무주고혼의 혼령과 삼대가친등중의 영령이 잘 구별되지 않고 있다 보니, ‘소청문소배헌삼대가친등중(召請文疏拜獻三代家親等衆)’⁶⁵이라고 해야 하는 대령소를 ‘근비문소소청십류삼도등중(謹備文疏召請十類三途等重)’⁶⁶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내가 청해 모시는 영령과 무주고혼의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칠칠재의 현재적 의미와 역할 및 미래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VIII. 망자와 산자를 이어주다

이 세상의 인연이 다하고 명이 다해 떠난 망자를 위해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살아남은 친지들이 개설하는 칠칠재, 그 재회는 목숨이 다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증유로 칠칠일 동안 명계에 머물면서 전생에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몸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성립되었다.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칠칠재의 형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의미와 이해의 차이가 일어난 배경을 전형과 변용의 관점에서 훑어보았다.

65) 법안 소장, 『필사본 제반법요』, 2.

66) 법성도(1982), 1.

선업을 지은 사람들조차 생사의 갈림길인 임종 이후의 중유 기간에 이르면 판단할 수 없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고 지옥을 헤맬 수 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친지들이 임종을 맞은 망자를 위해 칠칠재(사십구재)를 설하게 된다. 해서 먼저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6재일 등에 대해 『기세경』 등에서 살펴보았다. 재는 오후불식을 하며 정행을 닦는 신행인데 후대에 오면서 한국불교에서는 오후불식보다 공양 올리는 날로 변해졌다.

망자를 공양을 올리지 않으면 망자는 고힌이 되어 떠돌게 된다는 사상은 인도 전통의 인식이었지만 이것이 불교에 도입되어 시식의례로 발전하였고, 또 명부시왕의 권공의식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부시왕의 권공도 명부시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속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인식으로 별도로 예수재가 발전하였다. 명부의 시왕은 열 가지 선악의 결과에 따라 다음 생을 판정하는 역할과 사면의 기능이 있으므로 산자가 망자를 위해 시왕과 그 권속에서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이는 칠칠재의 주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명부시왕은 십선악의 판정자이자 십재일의 주관자이다. 시왕의 역할은 판정자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자에게 십악을 억지하고 십선을 권장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해서 망자를 위해 칠칠마다 재를 베풀고 시왕과 권속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그 의식이 한국불교의 『제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남겨진 의문은 16세기 중후반의 것과 17~8세기 전후의 것이 있다. 시왕권공과 심판의 사상과 의식은 십재일로 발전하였고, 칠칠재에서 백일재, 소상재, 대상재로 발전하였다.

망자의 공덕을 닦아주는 또 하나의 의식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불보살의 명호를 칭명하여 들려주어 깨달음에 이르고 공덕을 쌓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법석으로 발전하였으며, 법석의 폐지 이후

영산작법이 영산재로 발전해 있다. 현재도 칠칠재의 칠재에 배대한 경전 염송 신행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불보살의 명호를 칭명하는 정근 의식은 칠칠재 의식 속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왕권공이 중심이었던 칠칠재 의식이 상단권공 혹은 지장권공으로 변천해 가고 있다. 이는 영산이나 각배와 같은 전통의식이 범패와 작법무 등을 습득한 특수한 계층의 법사들이 주로 설행하게 되면서 전문의식이라고 인식하였거나 명부신앙의 부정적 이미지가 상단권공의 긍정적 이미지에 덮이게 된 데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지중한 인연으로 만나 친지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칠칠재를 연다. 종교적 신행 정도가 다르더라도 칠칠재를 봉행하면서 망자를 떠나보낸다. 망자를 단순히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혼령이 다른 길을 헤매지 않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며 기도를 한다. 망자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경전과 불명을 칭명하면 그 공덕으로 망자는 더 좋은 곳에 가서 복락을 누린다. 또 공양을 올리는 산자 역시 경건하고 정성 다해 공양을 올리며 수명이 늘고 복락을 받는데 무려 망자보다 여섯 배나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심 고취를 위한 장치라고만 할 수 없다. 망자를 위한 칠칠재의 표면에는 망자의 업장 소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산자의 십선 실천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십선은 신구의 삼업으로 이뤄지는데, 칠칠재를 경건하게 열어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칭명하면 산자의 삼업도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칠칠재(사십구재)는 망자와 산자의 소통통로이자 함께 잘 사는 신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칠칠재(사십구재)의 전형을 살펴보았고, 현재 한국불교의 그것은 적지 않은 변용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로는 본질과 거리가 멀어져 보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에 담긴 사상은 결코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망자로 인해 출발한 칠칠재가 산자를 다시 살리는 의례로 귀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종실록』
 Tirokuḍḍasutta, khp7.
 宋居士 沮渠京聲 譯, 『佛說八關齋經』(T 1).
 失譯人名, 『佛說食施獲五福報經』(T 2).
 實叉難陀 譯, 『地藏菩薩本願經』 「利益存亡品第七」(T 13).
 梁朝傅大士頌金剛經(T 85)
 藏川 述, 『佛說預修十王生七經』(X 1)
 藏川 述, 『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X 1)
 六和 撰(1576), 『預修薦王通儀』(KR 2)
 『권공제반문』(KR 1, 1573) / 『금산사제반문』(KR 2) / 『해인사제반문』(KR 3)
 법안 소장, 『필사본 제반법요』
 간경도감(1464), 『영인본금강경언해』, 흥문각.
 김도원(1988), 『금강반야바라밀경』, 선문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2003), 『통일법요집』, 조계종출판사.
 道端良秀(미치하타 료오슈우), 최채경 역(1991), 『불교와 유교』, 한국불교출판부.
 묘성법안(2005), 『왕생극락염송문』, 우면산 대성사.
 법성도(1982), 『四十九齋儀法』, 대구: 한방불교서원.
 安震湖 編, 韓定燮 註(1982), 『신편증주석문의문』, 법륜사.
 이은봉(1997), 『종교세계의 초대』, 벽호문화사.
 이화옥(1995), 『佛供儀式四十九齋 佛教儀式要集』, 대구: 삼영불교출판사.
 임기중(2000), 『불교가사원전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증암역주(2010/2014), 『완역 티베트 사자의 서』, 정우서적.
 中村元 著, 金知見 譯(1984/2011), 『佛陀의 世界』, 김영사.

- 차차석 편저(2007), 『중국의 불교문화』, 운주사.
- 한정섭(2006), 『재와 불공』, 불교통신교육원.
- 구미래(2005), 「사십구재의 의례체계와 의례주체들의 죽음인식」, 안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道端良秀(1960), 「中國佛敎と祖先崇拜」, 『佛敎史學』 第9卷 第1號, 佛敎史學會.
- 심상현(2017), 「묵담 대종사의 예수재에 대한 연구」, 『묵담 대종사, 그의 선·교·율』, 묵담대종사문도회.
- 沈曉燮(2004), 『朝鮮前期 靈山齋 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성운(2012),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운(2013), 「현행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한국선학회.
- 이성운(2015),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73, 한국불교학회.
- 이성운(2018), 「預修齋와 各拜齋의 同異」, 『정도학연구』 제30호, 한국정도학회.
- 이성운(2019), 「靈山齋의 獨立과 變容의 模範 探索」, 『제4회 경제어산연구소 세미나』, 경제어산전승보존회·경제어산연구소.
- 한상길(2017),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전개」, 『생전예수재 연구』, 민속원.
- 홍윤식(2015), 「구인사 예수재의 전통과 구성」, 『구인사 생전예수재의 전승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대한불교천태종·(사)진단전통예술보존협회.
- <https://kabc.dongguk.edu/Home/Contents?ccode=03&tcodes=08&naviKey=1>

[Abstract]

The panorama of the archetype of Chilchiljae and its variation

The first author: Lee, Sung woon

Research director, Institute of Buddhist rites and culture

The second author: Kim, In mook

Researcher, Institute of Buddhist rites and culture

This writing considers the archetype of Chilchiljae (七七齋, the weekly ritual for seven weeks) after death in Korean Buddhism and its vari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tual. The name of

Chilchiljae, popular nowadays, used in recent years. According to the Buddhist concept of life and death, it is said that human beings can be reborn in a better world as a result of both their own wholesome deeds and Chilchiljae others perform for antarrābhava (中有, the intermediate existence) during 49 days after their death. the essence of Chilchiljae is the ceremony of inviting The ten kings of hell (冥府十王) to the offering for the sake of the dead, whose objective is to encourage people to do good.

Another ritual for the virtue of the dead is beopseok (法席, Dharma seat), where people chant sutras for the dead. Yeongasnjae (靈山齋, Vulture Peak ritual) originated from Beopwha Beopseok (Saddharmapundarika Dharma seat), a form of beopseok. The rite of jeonggeun (精勤, fervent discipline), where they chant buddhas' and Bodhisattvas' name, is active in Chilchiljae.

But the main guests of the offering have been changing from The ten kings of hell (冥府十王) to Kṣitigarbha (Earth Store Bodhisattva) in modern and contemporary Chilchiljae. It might be because the positive image of Kṣitigarbha is preferred to the negative one of The ten kings of hell. It can be said that Chilchiljae is a channel of communication and the practice of faith for both the dead and the living.

keywords: antarrābhava (中有, the intermediate existence),
Chilchiljae (七七齋, the weekly ritual for seven weeks),
Forty-ninth day memorial service, inviting Kṣitigarbha to offerings,
beopseok (法席, Dharma seat), jeonggeun (精勤, fervent discipline),
netherworld belief